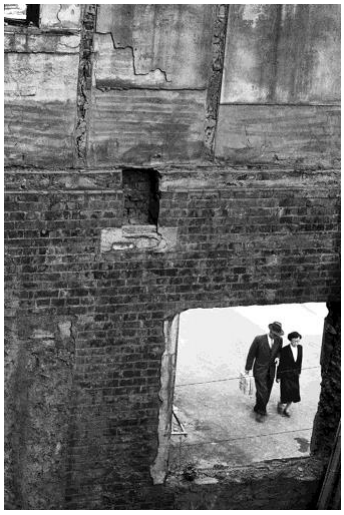
MISA SHIN GALLERY
3-9-11-1F, Minamiazabu, Minato-ku, Tokyo 106-0047 JAPAN
tel:+81-(0)3-6450-2334 fax:+81-(0)3-6450-2335
www.misashin.com info@misashin.com

MISA SHIN GALLERY | Frieze Seoul 2025
Booth: A22
2025년 9월 3일 – 6일

MISA SHIN GALLERY는 Frieze Seoul 2025에서 한영수, 도마쓰 쇼메이, 최재은, 가와마타 타다시, 신고 프랜시스, 이바 야스코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회화, 콜라주, 레리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시, 시간, 지각을 주제로 한 시각적 표현을 횡단적으로 소개합니다.



1945년 해방 후의 사진 표현에 초점을 맞춘 섹션에서는 한국의 한영수와 일본의 도마쓰 쇼메이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한영수(1933–1999)는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일상을 정밀하게 기록한 대표적인 한국 사진작가 중 한명입니다. 모피 코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나 눈밭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해방 후 도시의 일상적인 장면을 포착한 그녀의 사진은 해방 후 사회의 회복력을 인간미 넘치는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정교한 구도와 완벽한 타이밍이 돋보이는 사진들은 1950~60년대 한국 사회의 귀중한 기록으로, 오늘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an Youngsoo, *Myeongdong, Seoul, Korea 1956,* 1956 (printed in 2024) Toned gelatin silver print, image size 90 x 60 cm

도마쓰 쇼메이(1930–2012)는 미군 기지, 나가사키, 오키나와 등 해방 후 일본의 사회적·정치적 현장에 초점을 맞추며 일관된 시선으로 담아낸 일본 사진계의 거장입니다. 학생운동의 혼란과 전쟁·점령의 상흔을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시적 감성과 다큐멘터리적 리얼리즘이 공존하는 실험적 접근으로 사진 표현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 《Protest, Tokyo・Shinjuku》 및 《11시 02분, 나가사키》의 빈티지 프린트를 선보입니다.

Shomei Tomatsu, *Protest, Tokyo Shinjuku,* 1969, (printed in 1985) Gelatin silver print, image size 30 x 41.3 cm

MISA SHIN GALLERY
3-9-11-1F, Minamiazabu, Minato-ku, Tokyo 106-0047 JAPAN
tel:+81-(0)3-6450-2334 fax:+81-(0)3-6450-2335
www.misashin.com info@misa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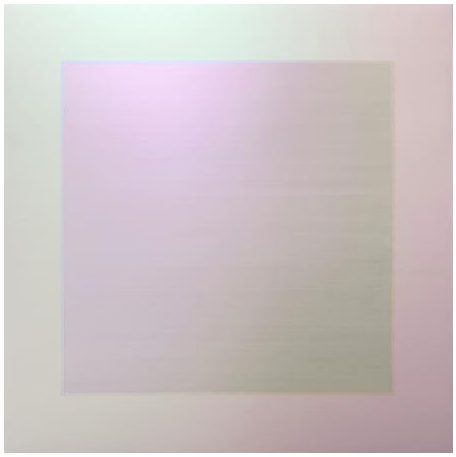
Jae Eun Choi, *Paper Poem No.3,* 2012, Aged paper
78.5 x 86.5 cm

최재은은 1976년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이케바나(일본 꽃꽂이)를 접하게 되었다. 소게츠류 3대 가문가인 데시가하라 히로시를 사사한 뒤, 1980년대 이후 생명과 자연, 시간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Paper Poem》 시리즈는 그녀가 베를린 체류 중 제작한 콜라주 작품으로,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폐기물장에서 발견한 고서를 수거해 인쇄되지 않은 면지나 책갈피용 종이를 잘라 화면 위에 재구성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종이는 시간과 빛에 의해 가장자리가 변색되며, 겹쳐질수록 섬세한 색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이 겹침은 도시의 조감도처럼 보이기도 하며, 페이지의 층위는 지층의 퇴적과 시간의 축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Paper Poem에서의 종이는 단순한 오래된 종이가 아닌, 종이의 원료인 '나무'의 시간이 인간의 지혜와 기억의 시간으로 전환되고 결실을 맺은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에는 서울시립미술관(SeMA)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Tadashi Kawamata, *P.S.1 Installation Plan,* 1984, Wood and conte
90 x 60 x 7.5 cm

가와마타 타다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공 공간에서의 특정적 대규모 설치작업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지역 사회 및 도시의 역사와 어우러져 일시적으로 공간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워크 인 프로그레스(Work in Progress)"로 불리며, 준비·설치·해체라는 전 과정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는 접근이 특징입니다. 본 전시에서는 1980~90년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레리프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들 작품은 프로젝트 구상단계에서의 구조적 사고와 실험이 응축된 축소판으로, 작가가 직접 제작한 중요한 과업입니다.

MISA SHIN GALLERY
3-9-11-1F, Minamiazabu, Minato-ku, Tokyo 106-0047 JAPAN
tel:+81-(0)3-6450-2334 fax:+81-(0)3-6450-2335
www.misashin.com info@misashin.com



Shingo Francis, *Four Sides Equal (violet),* 2025,
Oil on canvas, 76 x 76 cm

신고 프랜시스는 빛과 색채, 공간 지각에 대한 탐구를 통해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온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신 시리즈 《Interference》를 소개합니다. 본 시리즈는 '간섭 안료(Interference Pigment)'라 불리는 특수 반사 소재를 사용하며, 빛의 굴절과 반사로 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채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회화의 표면이 일렁이며, 정적이고 명상적인 공간을 자아내는 이 시리즈는 디지털 이미지로는 재현할 수 없는 실제 체험으로서의 '보는 것'를 환기시키며, 시각 경험 자체를 사유와 변형의 장소로 새롭게 제시합니다.

이바 야스코는 회화와 사진, 회화와 판화 사이의 독자적 위치를 구축하며, 일관되게 '질감'이라는 지각의 핵심을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시각과 촉각의 교차점으로서의 질감에 주목하며, 자수, 도자기, 점묘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보는 것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질문합니다. 회화이면서도 사진의 거리감이나 판화적 구조를 내포한 그녀의 작품은, 보는 이의 뇌 속에서 상이 맺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현실과 허상, 존재와 부재의 사이에서 질감을 떠오르게 합니다.

Yasuko Iba, *Untitled 2021-15,* 2021, Oil on canvas
65 x 65 cm

한영수 (Han Youngsoo)

1933년 한국 개성 출생, 1999년 사망. 1950~60년대 해방 후 서울 시민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낸 한국의 대표적 작가. 주요 개인전: "Han Youngsoo: Photographs of Korea 1956–1963"(하버드대 아시아센터, 2019), "Han Youngsoo: Photographs of Seoul 1956–1963"(ICP 저지시티, 2017), "Seoul, Where I Grew Up"(서울역사박물관, 2017) 등.

도마쓰 쇼메이 (Tomatsu Shomei)

1930년 일본 나고야 출생, 2012년 사망. 피폭지 나가사키, 고도성장기 도시풍경, 오키나와 등을 테마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을 기록하며 근래 사진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다. 주요 개인전: "Shomei Tomatsu: Skin of the Nation"(SFMOMA, 2004), "Tokyo 만다라"(도쿄도 사진미술관, 2007), "사진가 도마쓰 쇼메이 전작"(나고야시 미술관, 2011), "Island Life"(시카고미술관, 2013) 등.

MISA SHIN GALLERY
3-9-11-1F, Minamiazabu, Minato-ku, Tokyo 106-0047 JAPAN
tel:+81-(0)3-6450-2334 fax:+81-(0)3-6450-2335
www.misashin.com info@misashin.com

최재은 (Choi Jae-eun)
1953년 서울 출생. 1976년에 일본 체류하면서 데시가하라 히로시 사사하며 전위(**前衛**)이케바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자연과 인간, 생명의 순환을 테마로 한 설치 작업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한다. 주요 개인전: “아쇼카의 숲”(하라 미술관, 2010), “The Nature Rules”(하라 미술관, 2019), “새로운 삶”(메종 에르메스, 2023) 등.

가와마타 다다시 (Kawamata Tadashi)
1953년 일본 홋카이도 출생. 1982년 베니스비엔날레 참가 이후 도쿠멘타, 리옹비엔날레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 현재는 파리 에 거주, 건축, 사회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 중이다.

신고 프랜시스 (Shingo Francis)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출생. 로스앤젤레스와 가마쿠라를 거점으로 활동. 대표작: 깊은 블루 계열의 추상화, 간섭 안료를 사용한 《Interference》 시리즈. 주요 전시: DIC 가와무라 기념 미술관(2012), 메종 에르메스 포럼(2023), 치가사키시 미술관(2024) 등.

이바 야스코 (Iba Yasuko)
1967년 교토 출생. 사가미술단기대학 판화과 수료. 사물의 표면과 시선 사이의 빛과 공기, 보이지 않는 질감을 그리는 회화로 알려짐. 주요 전시: “시선의 경계”(도쿄도 미술관, 2019), “눈부심의 자리”(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2009). 작품은 국립국제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클리블랜드 미술관 등에 소장.

MISA SHIN GALLERY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3-9-11 Pine Coast Heights 1F

지하철 이용 시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広尾(히로오) 역에서 남부자카 경유 도보 12분
・도쿄 메트로 난보쿠선·미타선 白金高輪(시로카네타카나와) 역에서 야쿠엔자카 경유 도보 15분
・도쿄 메트로 난보쿠선·도에이 오에도선 麻布十番(아자부주반) 역에서 센다이자카 경유 도보 16분

버스 이용 시
・도에이 버스 [橋86] 계통 “仙台坂上(센다이자카우에)” 정류장에서 도보 3분
・치이버스 “仙台坂上(센다이자카우에)” 정류장에서 도보 3분
・아자부 서루트(히로오역 – 아자부주반역 – 롯폰기 케야키자카 – 히로오역)

MAP

문의
이메일: info@misashin.com | 전화: +81-3-6450-2334